



진영승(왼쪽) 합동참모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12일 해병대6여단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있다.

합참 제공

합참의장·한미연합군사령관, WS 참가 장병들 격려

<연합기동훈련>

이틀 연속 FS 연습 현장 대비태세 점검 “동맹 압도적 능력으로 도발 억제” 강조

진영승 합동참모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12일 이틀 연속 ‘2026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현장

을 함께 찾아 연합·합동작전태세를 점검했다. 진 의장은 지난 10일부터 사흘째 FS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대비태세를 살피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백령도를 찾아 작전태세를 확인하고, FS 연습과 연계해 실시 중인 연합기동훈련(WS·Warrior Shield)에 참가

한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진 의장은 훈련 중인 현장 지휘관에게 “강도 높은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힘을 현시하고, 실전적 연합작전능력을 향상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동맹의 압도적 능력으로 도발을 억제하고, 적이 도발한다면 원칙과 기

준에 입각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장병들에게는 국가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진 의장은 “(여러분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수도권을 향하는 관문인 백령도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충북 괴산군 일대에 묻힌 6·25 전사자 찾는다

육군37보병사단, 유해발굴 개토식

육군37보병사단이 75년 전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웅을 찾기 위한 올해 유해발굴작전의 시작을 알렸다.

사단은 12일 김경수(소장) 사단장 주관으로 충북 괴산군 연풍문화센터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을 개최했다. 개토식에는 사단 주요 직위자와 6·25전쟁 참전용사, 관계기관장, 국방부유해발굴감

식단(국유단) 장병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사단 괴산대대와 국유단은 오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일대에서 유해발굴에 나선다.

해당 지역은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3~16일 국군6사단이 적을 상대로 격전을 벌인 이화령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국군은 개전 초 열세를 딛고 적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지연하며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주광림(중령) 괴산대대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선배 전우님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빠한 조각, 유물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발굴해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이재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제13대 원장 취임

육사 34기로 군·정부·민간서 주요 보직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은 지난 4일 이재현 예비역 육군준장이 제13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육군사관학교(육사) 34기로 임관해 37년간 육군에서 야전·정책·조약·국화·관리 분야를 두루 거친 국방·군사·안보 전문가다.

육군2군단 부군단장, 66보병사단장, 교육사령부 교리차장, 국방부 국회연락담당·국회업무지원태스크포스(TF)장·군무지원단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임무를 완수했다.

전역 후에는 합동참모본부 학술정책연구관 겸 합참의장 자문위원, (주)동아엘텍 부사장(경영교문), 한국교원대 특임교수를 역임했다. 또한 성남시 안보정책자문관·



경기도 평화안보조정관·화성특례시 안보협력관을 맡는 등 관·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KIMA를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 중심의 국가안보 전략과 첨단 강군 육성을 지원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KIMA 임직원 모두는 원팀

(One Team)이 돼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이바지하고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탄생하는 데 헌신의 노력을 다해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사 영역에 인공지능(AI)이 적용됨에 따라 모든 영역이 통합된 다영역 작전 수행을 위한 미래전력 개발로 확대돼, 이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과 예비역 간 교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군 역량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해군사관생도들, 주한미해군사령관에 영어 작문 실력 뽐내

CNFK 영어 에세이 대회 시상식 개최 YBM 후원...민·군 교육협력 강화

해군사관학교(해사)는 12일 “전날 주한미해군군무지원단에서 주한미해군사령부(CNFK)와 공동으로 ‘CNFK 영어 에세이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NFK 영어 에세이 대회’는 사관생도의

영어학습 동기부여와 영어 구사력 향상, 한미 양국 간 상호 이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YBM이 후원사로 참여해 수상자 상품과 참가자 기념품을 전달하며 민·군 교육 협력을 강화했다.

대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진행됐다. 참가 생도들은 ‘해군장교의 리더십’과 ‘향후 10년간 대한

민국 해군·해병대가 마주할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영어 에세이를 작문·제출했다.

생도들은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영어 작문 실력을 겨뤘고, 주한미해군사령관이 직접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을 선정했다. 이에 최우수상은 이기석 생도(3학년), 우수상은 이유진 생도(2학년)와 최시은 생도(3학년)가 차지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주

한미해군사령관 상장 및 상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생도는 역대 최우수상 수상자 명패에 기명되는 영예를 안았다.

샤리프 칼피(준장) 주한미해군사령관은 “생도들의 우수한 영어능력과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대회가 한미 해군 간 상호협력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인사 ◆국가보훈부 <국장급 승진>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이현옥